

第1回

韓中美術交流展

2001



第 1 回

한중 미술 교류전

2001

展示期間:2001年 12月 25日(火)~28日(金)

招待日時:2001年 12月 26日(水) 午後 6時 30分

展示場所:馬山教育文化 센터 갤러리

主催: 韓 國 馬 山 市

主管: 社團法人 韓國美術協會 馬山支部
馬 山 美 術 協 會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무순시(撫順市)와의 교류전에 부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일컬어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국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경쟁력으로 그 나라의 우월성을 따지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진원지는 국가 단위의 애국심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애향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遼寧省)의 중공업도시인 무순시(撫順市)와의 제1회 한·중미술교류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명나라 때 북의 여진족 침략을 막기 위해 성을 쌓으면서 “변방을 공고히 하여 오랑캐를 잘 인도한다”는 뜻으로 이름 붙인 무순(撫順)이 지명으로 남아있는 역사성과 누루하치가 세운 청나라 발원지가 무순성(撫順城)이었다는 사실에서 오랜 연원(淵源)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산 역시 월영대 유래에서 보듯이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 이후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은 고장이었으며, 개항 100년 역사가 말하듯 일찍이 열려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두 지역간에 문화를 교류하는 전시회를 가진다는 것은 「문화의 진원지는 지역 단위의 애향심」이라는 시대 흐름에 적절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랴오닝성 무순시 미술협회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시회를 갖게됨을 환영하면서, 이번 전시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애써준 마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마산시의회의 상과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회 한·중 미술교류전을 계기로 양 지역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동양문화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 12.

마산미술협회장 성 낙 우

在與中國遼寧省撫順市美術交流展共同舉行之際

許多人都稱當今時代是文化時代,其意義是,當今時代不是以軍事力和經濟力評價國力之時代,而是以其文化競爭力來評價其優越性之時代,同時,文化之震源地,不是以國家為單位之愛國心,而是以地區為單位之愛鄉心為主,故此,與作為中國遼寧省重工業城市撫順市共同舉行之交流展,更具有深遠意義,在明朝時期,為阻止北方女真族攻擊而建立城池,鞏固邊防,以善以引導未開化民族之意而取名為撫順,留傳至今,由此可見,其歷史性與努爾哈齊所建立之清朝之發源地撫順城實際上具有深遠之歷史淵源,從我們馬山歷史由來也可以看出,自孤雲崔沅先生以後,馬山便成為詩人墨客津津樂道以之為家之地,馬山開港已有100多年歷史,是開放較早之城市,具有如此歷史背景之兩地區間進行文化交流之展示會,也正說明文化地震源地是以地區為單位愛鄉心之時代潮流中之極為適合之事例。

在此慶祝與中國遼寧省撫順市美術協會在此歲末展示會舉行之同時,向為使本次展示會順利舉行而大力支持與協助之馬山市表示真心地感謝,真心期望以本次交流展為契機,更加促進兩地區間文化交流,確立東洋文化圈之整體性。

馬山美術協會長 成 樂 禹

축 사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 국제교류협력도시인 중국 무순시와 마산시의 미술교류전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한·중미술교류전의 개최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미술협회 마산지부 상낙우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번 미술교류전에 참여해 주신 무순시와 마산시 미술협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미술교류전 참여를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마산시를 찾아주신 중국 무순시 미술협회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순·마산 미술교류전은 국제교류협력도시로 얻을 맺고 있는 두 도시의 미술인들이 참가해 상호간의 우호와 협력,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번 교류전이 두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의 아름답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도시의 많은 미술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류전이 시민들의 많은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두 도시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한·중미술교류전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12.

마 산 시 장

祝 辭

在此多事之秋辛巳年歲末之際,作爲國際交流協作城市撫順市與馬山市間之美術交流展之舉行,具十分深遠之意義,本人表示衷心地祝賀,同時,向以韓國美術協會馬山支部成樂馬支部長爲代表爲本次美術交流展之舉行不辭勞苦之諸位與參加美術交流展之撫順市與馬山市美術協會諸位表示深深地感謝,向爲參加本次交流展不辭勞頓遠道馬山而至之中國撫順市美術協會會員諸位人士表示衷心地歡迎。

本次撫順-馬山美術交流展,是以國際交流協作城市而結緣之兩市美術界人士共同參加,其將成爲促進相互間友好與協作交流之契機,不但如此,本人還認爲,本次交流展是我們市民接觸兩市美術界人士之優美高超之藝術作品之良好機會。

兩市許多美術作家參與本次交流展,本人希望在廣大市民之參與中成功舉行,祝願今後兩市交流更加頻繁發展,在此,我再次向撫順馬山美術交流展之成功舉行表示祝賀,并祝所有喜愛美術之士身體健康,萬事如意。

馬 山 市 長

축 사

신사년이 지물어가고 있는 세모에 무순시와 마산시 간의 미술교류전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온 시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지난 97년도에 우호관계를 튼 우리 마산과 무순시는 그동안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두 지역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음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가 될 21세기는 국가와 지역간의 무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서로가 돕고 돕지 않으면 생존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사회적 조류 속에서 중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무순시와 우리 마산시 간에 처음으로 갖게 된 제1회 한·중미술교류전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인류의 공동언어인 미술은 사상과 이념, 언어와 풍습, 민족과 정파를 아우르는 위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세기의 첫해에 갖게된 이 교류전은 무순과 마산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지역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진정한 교류와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 등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무순과 마산의 미술인 여러분의 뜻을 모아 마련한 이 교류전이 두 지역의 미술문화 발전과 공동번영 그리고 시민 간의 우정과 우의를 가일층 촉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한국미협 마산지부 성낙우회장님을 위시한 무순과 마산의 미술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하며, 제1회 한·중미술교류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12.

마산시의회의장

祝 辭

在此辛巳年歲暮,舉行撫順市與馬山市間美術交流展,本人與全體市民萬分高興,衆心地表示祝賀.

1997年度,馬山市與撫順市建立友好關係,其間相互交流,增進協作,使兩地區間人與物之交流日益增長,意義十分重大.21世紀成爲世界化地方化之時代,國家與地區間也展開無比熾熱之競爭,故此,也可以說21世紀是如不互相一助,連生存都無法保障之世紀.在如此時代,在如此社會潮流之中,中國舉足輕重之中心城市撫順市與我們馬山市間初次舉行之本次交流展,實在具有極其深遠之意義.美術作爲人類共同之言語,具有總括思想與理念,言語與風習,民族與政派之偉大之力量.故此,在新世紀之第一年舉行之本次交流展,撫順與馬山兩地區之市民,進行不同方式之生活,在此,相互打開心靈之一,此次盛會將成爲真正交流與協作之出發點.兩地區克服距離上等諸多不利條件,本人衆心,祝願撫順與馬山美術界諸位人士同心協力所準備之本次交流展成爲促進兩地區間美術文化事業之發展與共同繁榮之機會,成爲加深市民間友情與友誼之機會.

在此向盡心盡力準備本次展示會之以韓國美協馬山支部成樂禹會長爲首之撫順與馬山美術界諸位表示深深地感謝與慰問,預祝撫順-馬山美術交流展成功舉行,并祝大家身體健康,萬事如意,謝謝.

馬山市議會議長

第1回 韓·中美術交流展 撫順市 出品 會員

東洋畫 路 民，楊寶峰，於鶴忱，金威昕，胡曉暉，趙寶山
閻 撫，董義民，李樹人，武國偉，朱 濤，申明利
馬 明，金 輝

書 法 張英武，戴一光，李家田，馬建國，趙忠良，趙文新
郭慶忠，呂世坤，宿光龍，李潤善，金昌傑，朴卿相
高連柏，張洪來，張 婷，周 遊，高 城，曲寶洪
劉鵬舞，李茂玉，鍾成山，魯連祥，趙鐵錚，劉繼銀
李曉峰，路雷鳴，許尊善，楊一凡，董 莉，周 青
徐可大，于 濱，關丕彥，張東濱，賈 權

西洋畫 朱連義，葛書清，梁名臣，趙世華，李維海



路 民(東洋畫/40歲)

單位:撫順市青少年宮

- 中國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美術家協會主席
- 撫順市新撫區美術家協會主席



楊寶峰(東洋畫/42歲)

單位:撫順市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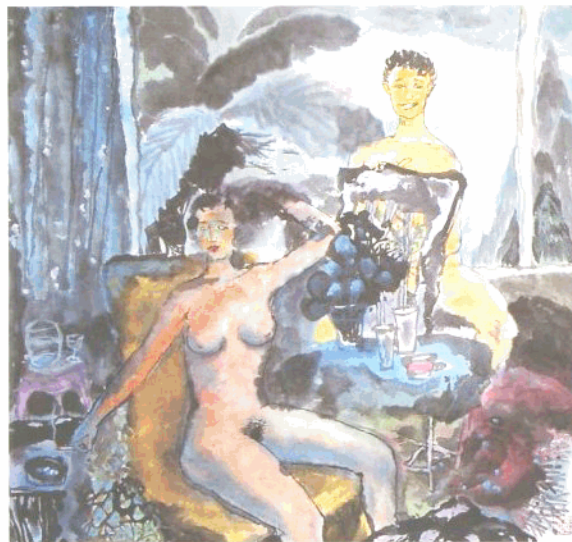
- 中國書畫家協會理事
- 撫順市美術家協會副主席
- 撫順市青年美術家協會主席



於鶴忱(東洋畫/48歲)

單位:撫順市書畫院

- 撫順市美術家協會副主席
- 撫順市書畫院畫師



金威昕(東洋畫/45歲)

單位:撫順市規劃設計院

- 中國雕塑家協會會員
- 中國美術家協會遼寧分會會員



胡曉暉(東洋畫/34歲)
• 撫順市美術家協會會員



趙寶山(東洋畫)
• 撫順市美術家協會會員



閻撫(東洋畫/49歲)
單位:撫順市書畫院
• 遼寧省美術家協會會員
• 撫順市美術家協會副主席



董義民(東洋畫/50歲)
• 撫順市美術家協會會員



馬 明(東洋畫/47歲)

單位:撫順市書畫院
•遼寧省美術家協會會員
•撫順市美術家協會副主席



金 輝(東洋畫/35歲)

單位:撫順市博物館
•遼寧省青年美術家協會會員
•撫順市美術家協會會員

雪集長江萬里情

張英武



張 英 武(書法/67歲)

單位:撫順市書畫院
•撫順市書法家協會名譽主席
•撫順市美術家協會名譽主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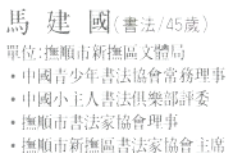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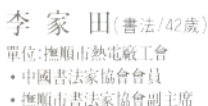


戴 一 光(書法/46歲)

單位:撫順國稅局
•遼寧省書法家協會會員
•撫順市書法家協會副主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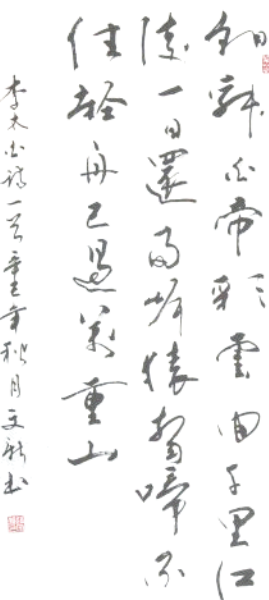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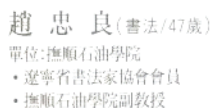
春自隱山尺一簫
江上望新詩
櫻花芳第福

家



予端競秀萬歲年一洗
予端競秀萬歲年一洗
意寧馬公國事

朱崖端邊野云易衣巷口夕陽斜
舊時之謝安家燕飛入尋常
百姓不知為錫易衣巷矣



李太白詩一首
壬戌年
王新書

趙文新(書法/46歲)
單位:中國人壽保險公司
•撫順市書法家協會會員

明月如日照
漁舟



呂世坤(書法/51歲)
單位:撫順市檔案館
• 中國書法協會會員
• 撫順市書法家協會副主席

靜生得東風清

萬里

靜閣

佳山佳水佳年於此



郭慶忠(書法/44歲)
單位:撫順市新華書店
• 撫順市書法家協會會員
• 中國書畫家協會會員

만사대길

李潤善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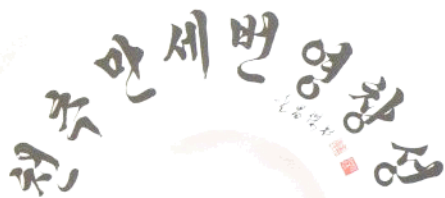
問世同情是何物且教生死相許天南北北雙飛處處
我思君君思我歡聚離別苦是中更有痴兒女君應
語渺心萬里屬而心亦苦景佳別處誰在橫汾河
望遠隔千里一簫鼓紫煙紅雨半起紅魂楚歌何處
鬼自傷風雨無時未信此言見燕燕悲華亭
古語曰情歸人往歌斷難禁此語傷心處
李潤善書於撫順市檔案館



李潤善(書法/46歲)
單位:撫順市朝鮮族文化館
• 中國攝影家協會會員
• 遼寧朝鮮族美術學會副會長



宿光龍(書法/41歲)
單位:民進撫順市委
• 遼寧省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書法家協會理事



창된 함으로 이
위상을 함점
부끄럼없이 살
아가려다



金昌傑(書法/69歲)

- 撫順市朝鮮族經濟文化交流協會顧問
- 國際美聯中韓文化藝術書畫家委員會委員
- 吉林名人研究院副主席



朴卿相(書法/26歲)

單位：撫順市新賓縣朝中
遼寧省朝鮮族美術學會會員



高連柏(書法/65歲)

單位：撫順畫苑

- 遼寧省書法家協會會員
- 遼寧國畫研究會會員
- 撫順市書法家協會理事



張 洪 來(書法/56歲)

單位：撫順師專美術部

- 遼寧省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書法家協會會員

隨清空
意泉山
春石新
芳上而
歌流復
玉聊天
絲噓氣
自歸晚
可洗來
留文種
蓮明
動月
下松
漁問
舟照

唐王維山水詩

新嘉坡

張
氏
印

鍾靈毓秀

辛巳年仲秋 周遊



周 遊(書法/39歲)
單位:撫順賓館畫苑
•遼寧省書法家協會會員
•遼寧省印社社員

對岸青山
明月有情
芳草諸君
玩人

張婷



張 婷(書法/30歲)
單位:撫順師專美術部
•撫順市書法家協會會員
•撫順市美術家協會會員

高樓出林杪中有千載書
昔人不見倚檻竟何如

曲寶洪



曲 寶洪(書法/40歲)
單位:撫順市工商局
•遼寧省書法家協會會員
•撫順市書法家協會理事

獨情無草洞遙生上日黃鵬早松
鳴春潮帶雨晚來急風生海世
人每自嘆

高城



高 城(書法/43歲)
單位:撫順鐵工報社
•遼寧省美術家協會會員
•撫順市書協美協理事
•撫順市青年書協美協副主席
•撫順鐵工報社美術編輯

孤山鳥飛絕
萬徑人蹤滅
蒼山負雪皚
獨釣寒江雪

蘇軾詩 江雪詩 宋 王 孟 己年 初秋 李 茂 玉 書



李茂玉(書法/44歲)

單位:撫順酒廠
• 撫順市青年書法家協會副主席
• 撫順市書法家協會會員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兄



劉鵬舞(書法/63歲)

單位:撫順新賓中學
• 撫順市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新撫區書法家協會理事

勞歌一曲解行舟
紅葉青山水
急流日暮酒醒人
已遠滿天風
雨下西樓

許澤樹 謝序遠 謝序遠 於遼東 撫順 書



魯連祥(書法/80歲)

單位:撫順一百商場
• 中國老年書畫研究會會員
• 中國書畫函授大學撫順分校講師
• 撫順老年大學書法講師

竹
松
風
蕉
葉
雨

琴
韻
讀
書
聲

鍾成山



鍾成山(書法/46歲)

單位:撫順醇醴廠工會
• 遼寧省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書法家協會理事

蘇子瞻詩



單位：撫順鐵林業處工會
• 中國硬筆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新撫區書法家協會理事

[illegible]

單位：撫順鐵務局
• 中國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新撫區書法家協會理事

詩酒相留冬槽春盎
風物堪畫晚孤寒紅



單位：撫順洗化廠工會
• 遼寧省書法家協會會員
• 撫順青年書法家協會理事

張



單位：撫順鮮花店
• 中國青少年書法協會會員
• 撫順市新撫區書法家協會理事



李樹人(東洋畫/60歲)

- 單位:撫順市藝術館
 • 中國美術家協會會員
 • 國家一級畫家



武國偉(東洋畫)

- 單位:撫順師專
 • 遼寧省美術家協會會員
 • 撫順市美術家協會副主席



朱濤(東洋畫/20歲)

- 單位:撫順師專
 • 遼寧省青年美術家協會會員
 • 撫順市青年美術家協會理事



申明利(東洋畫/36歲)

- 單位:撫順市書畫院
 • 撫順市美術家協會會員

孤山鳥飛絕
萬徑人蹤滅
孤舟蓑笠翁
獨釣寒江雪

錄柳宗元江雪詩
壬子年秋李茂玉書



李茂玉(書法/44歲)

單位:撫順酒廠
• 撫順市青年書法家協會副主席
• 撫順市書法家協會會員

兄
兄
兄
兄
兄

壬子年秋
劉鵬舞書



劉鵬舞(書法/63歲)

單位:撫順新賓中學
• 撫順市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新撫區書法家協會理事

勞歌一曲解行舟
紅葉青山急流日暮酒醒人已遠
滿天風雨下西樓

許澤祥
謝孝遠
於遼東撫順



魯連祥(書法/80歲)

單位:撫順一百商場
• 中國老年書畫研究會會員
• 中國書畫函授大學撫順分校講師
• 撫順老年大學書法講師

竹
琴
韻
讀
書
雨

鍾成山書



鍾成山(書法/46歲)

單位:撫順醇醴廠工會
• 遼寧省書法家協會會員
• 撫順市書法家協會理事